

| 글. 김충호 Kim, Chung-ho
·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 박사과정

누가 미국 도시를 디자인하는가?: 뉴 어바니즘 vs.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Who design American cities?: New Urbanism vs. Landscape Urbanism

미국 도시설계의 주체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

도시는 오늘날 인류가 거주하는 가장 큰 물리적 환경의 총체로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도시를 설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며, 성취감 높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도시를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해야 할까? 건축사, 조경가, 도시계획가, 토목기술자? 일견 생각해 보면, 건축사는 도시의 집을, 조경가는 도시의 공원을, 도시계획가는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토목기술자는 도시의 인프라를 설계하기며, 도시설계의 총괄적인 역할은 과연 누가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물론, ‘도시설계가’라는 명칭이 일부에서 통용되고는 있으나, 도시설계 가만이 가지는 전문가로서의 교육 및 훈련과정이나 직업적 지위가 현재 다른 유사 직능과 분명하게 독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건축사, 조경가, 도시계획가, 토목기술자도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설계의 주체를 둘러싼 본질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뉴 어바니즘(New Urbanism)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사이의 10여년에 걸친 논쟁이다. 이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도시를 디자인해야 하는가?”라는 이론적 논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면적으로는 “누가 도시를 디자인해야 하는가?”라는 도시설계의 업역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의 양상마저 띠고 있다.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vs.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오늘날의 뉴 어바니즘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사이의 이론적 논

쟁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현재의 미국 도시담론의 큰 흐름을 결정 한 사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은 1961년 출간된 책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으로 유명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16~2006)다. 이 책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도시의 생명력은 동네, 거리, 상점, 사람에 있으며, 이들의 일상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접촉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혁신하게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등장하기 시작한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은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앞서 제인 제이콥스의 생각과 깊게 맞닿아 있었다. 뉴 어바니즘의 핵심개념은 뉴어바니즘협회(Congress for the New Urbanism)에서 1999년 발표한 ‘뉴 어바니즘 헌장(The Charter of New Urbanism)’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 어바니즘은 교외 개발(suburban development)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기존 도시와 마을을 되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건물 용도와 인구의 다양성(diversity of use and population), 보행 중심 개발(pedestrian-oriented development), 보편적인 접근 가능성(universal accessibility), 지역성(locality) 등을 실현할 물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반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990년대 후반부터 조경가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핵심개념은 현재 하버드대학교 조경학과장으로 있는 찰스 월드하임(Charles Waldheim)이 14명의 에세이를 묶어 2006년에 펴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리더(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에 잘 나와 있다. 이 책의 글 중에



뉴 어바니즘 프로젝트: Seaside, Florida (Duany Plater-Zyberk & Company 설계)
 ©http://www.dpz.com/Projects/7903

제임스 코너(James Corner)의 '테라 플럭서스(Terra Fluxus)'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특징을 시간에 따른 변화(process over time), 수평성(horizontal), 동시대의 방법과 기술(working methods/techniques), 현재에 대한 새로운 상상(the imaginary)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뉴 어바니즘이 추구하는 절대적이며 강력한 원칙, 수직성, 과거 유럽도시 지향적인 해결책, 이상적인 도시 모형과 크게 대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뉴 어바니즘 (New Urbanism)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ape Urbanism)
핵심 인물	안드레스 듀아니 (Andrés Duany)	찰스 월드하임(Charles Waldheim)
시기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	1990년대 후반 시작
접근 방식	건축 중심의 디자인 접근 -스케일에 따른 물리적 해결책	조경 중심의 디자인 접근 -다양한 디자인 어휘를 하나로 통합
특징	- 과거 지향적(유럽식 건축/도시 지향) - 강력한 원칙과 이상적 모형 제시 - 합리주의적 사고	- 현대/미래 지향적(최근 디자인 어휘) - 프로젝트에 따른 개념과 해결책 제시 - 경험주의적 사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프로젝트: High Line Park, New York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설계)
 ©http://marialardi.com/2010/04/20/the-highline-%E2%80%93-new-york-by-jcfo-diller-scofidio-renfro/

그렇다면, 앞으로 뉴 어바니즘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어떻게 진화할까? 실상, 두 이념은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도시가 건축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만도, 조경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만도 없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앞으로 두 이념이 각자의 장점을 견지한 채,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절충주의적 성격을 추구하면서 진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뉴 어바니즘은 필지 중심의 건축행정절차나 도시설계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점을 살리면서, 오늘날의 '친환경'과 같은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리라고 본다. 실제로 최근에 뉴 어바니즘의 LEED-N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참여는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 중심의 개념 설정과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의 아이디어를 통해 오늘날 세계적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념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도시의 밀도와 용도의 문제에 대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인 해결책을 탐구하여 제시하리라고 본다. ㉞